

일자리·남북협력기금 등 줄줄이 보류

국회 예결위 활동 오늘 시한

1차 감액 심사도 빠듯

합의 안되면 '추후 심사' 넘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 소위가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예결위 활동 시한(11월 30일) 내 처리는 힘겨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소위가 일주일 지각 가동된 데다, 전날까지 사흘간 파행하면서 아직 심의하지 못한 부처가 다수 남아있기 때문이다. 1차 감액 심사를 마치는 것조차 빠듯한 분위기다.

전날 오후 재개된 예산소위는 이날 새벽 1시30분까지 예산 심사를 진행했으나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는 건건이 대치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 논의'로 넘겨졌다.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재개, 교육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환경부 예산안은 아직 손조차 못 댔다.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의 예산안 심사도 남아있다. 또, 여야의 충돌로 심사 자체를 통째로 보류하기로 한 남북협력기금 등 통일부 예산안도 있다. 이 때문에 예산소위가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활동 시한까지 1차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야당의 한 예결위원은 "예산 당치가 큰 부처들의 심사가 줄줄이 남아있는데 계획보다 심사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다"며 "지금의 심사 방식과 속도대로라면 30일 자정까지 감액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30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

면 예결위 의결 권한이 사라지고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결국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단계로 예산안 심사가 넘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날 예산소위의 고용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일자리 예산을 놓고 대치하며 여러 차례 충돌했고 파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특히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놓고 자정을 넘겨서까지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자선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 대상자를 12만명으로 잡은 데 대해 한국당이 최소 1000명이라도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이 원안 유지를 고수하면서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여러 명이 '통일부 사례처럼 고용부 심사를 통째로 보류했다가 추후 심의하자'고 주장했으나, 한

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반대하면서 해당 사업 예산은 보류해 소소위로 남기고 남은 10개 항목에 대해선 추후 계속 심사하는 선에서 상황이 정리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놓고 신경전을 계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예산 통과 기한(12월 2일)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이) 이번에도 감감·밀실 예산으로 예산심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실수든 착오든 무려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기본설계부터 잘못됐다"며 "예산이 무슨 인터넷 암호번호 아니고 문자도 따지지 않고 심사에 나서느냐. 민주당은 예산처리의 법정시한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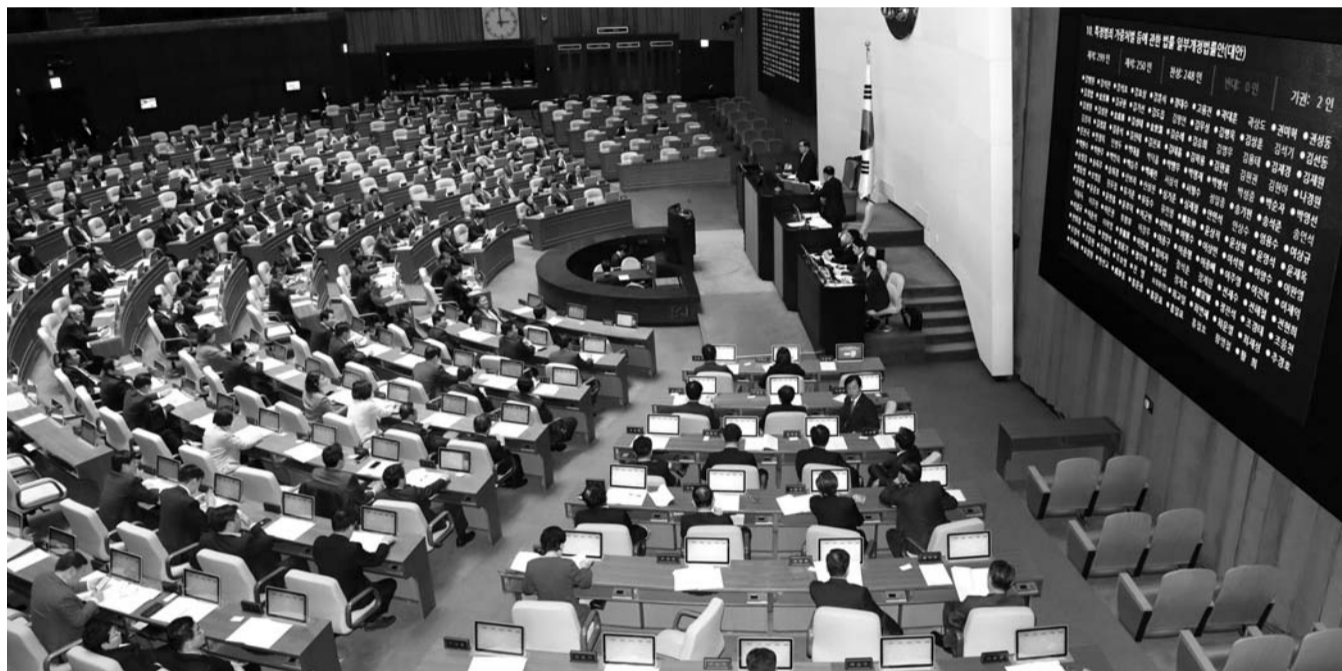
윤창호법·김성수법 등

법안 60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특가법 개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창호법과 함께 '강서PC방 사전 후속법'으로 일컬어지는 형법 개정안 등 총 60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개정 형법에서는 심신미약 감정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경에 일부 제한을 뒀다. /박지경 기자 jkpark@



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혁신위 "의원 정책개발비 검증"... 로비스트 양성화 입법 제안

문 의장에 보고서 제출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29일 국회 혁신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혁신위는 권고사항을 제도, 예산, 인사 및 조직 등 크게 세 분야로 구분했다. 혁신위는 우선 제도와 관련해 상임위원회의 상설 소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의원외교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선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 출장의 성과 점검이나 타당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중요한 입법 사항이나 안전에 대한 입법

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국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는 한편, 매년 국회백서를 발간해 내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또 예산과 관련해 국회의원 입법·정책 개발비 사용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체계를 갖추고, 의원실별 연구 용역의 용도와 근거자료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국회사무처의 부적절한 위탁용역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처의 입법·정책연구용역 예산을 입법조사처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국회에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들에 주는 법인보조금의 예산편

성 원칙과 회계처리 기준을 신설하고, 보조금 용도에 맞지 않은 예산을 2020년까지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인사 및 조직 분야와 관련해선 의원 입법 지원 선진화를 위한 별도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안 발의 전 입법예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행정부 등에 대한 파견 직원의 중장기 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훈련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특히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서 일하던 연구직 공무원의 보직 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국회사무처와 위원회에서 개방형 직위 채용을 확대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권고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혁신위는 음성적인 로비스트의 활동을 양성화하는 입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선 이와 관련한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로비스트'라는 용어도 적절한 한글로 변경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출범한 혁신자문위는 열 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

바른미래 일부 의원 한국당 복당설 한국당發 보수 정계개편 맞 올리나

정우택 의원 "5~6명 기습 복당" 이학재 의원 "보수 통합에 고민"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정계개편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29일 일부 의원의 '자유한국당 복당설'로 술렁였다.

전날 한국당 회의에서 친박계 중진인 정우택 의원이 "바른미래당 5~6명이 기습 복당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복당 의사를 밝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앞서 한국당 내부에서 '보수대통합론'과 '통합전당대회 개최' 이야기가 나오며 비대위 일부가 바른미래당 의원 영입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기점으로,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전신인 옛 새누리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르렀을 때나 내년엔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에 대한 물밑 접촉을 해온 정황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지방선거 후 5개월 만에 '대학 강연'을 통해 대외 행보에 나선 유승민 의원은 28일 이화여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측에서 저와 가까운 정치인을 보내 입당하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다"고 밝혔다.

한때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몸 담았던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는

'보수 통합'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최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당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중론인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29일 일부 의원의 '자유한국당 복당설'로 술렁였다.

이날 한 언론에서 한국당 복당 의사가 있는 것으로 거명된 이학재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대한 저의 고민이 깊은 것은 사실이다. 정계개편이 끝난 뒤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및 한국당 복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바른미래당 출신 여러 의원들의 설명이다.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 총회에는 공교롭게도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고, 손학규 대표는 "당의 기강이 말이 아니다"라고 언짢은 심기를 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도 바른미래당 내 보수성향 의원들의 한국당 합류설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들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한국당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내년 중순 이후에 다른 방식의 보수 대통합을 도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오세훈 前 서울시장 한국당 입당 "보수 단일대오 형성에 기여할 것"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미력이나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입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국회에서 입당식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좀 더 잘해서 약속했던 대로 성문을 써도 부족할 판에 오만하게도 20년 집권론을 입에 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정을 거듭하고도 여전히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 정부의 무능과 고집스러운 폭주를 그대로 변경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 전 시장은 "내년에 치러지는 한국당 정당대회가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보수우파의 이념과 철학에 동의하는 모든 정파가 모여 치르는 통합 전대가 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그래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학교 무상급식 투표 후 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서 사죄한다"면서 "다만 복지 포퓰리즘이 분명하게 예상돼 복지 기준선에 맞춰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책임 의식의 발로였다"고 설명했다.

또 오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을 탈당한 데 대해서도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대선을 치러서 '해볼 만한 대선'을 만들어 보자'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치 실험이던 데 대해 깊이 머리 숙여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